사회적 관점에 의한 슬로 패션의 특성과 미적 가치

노주현[†] ·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Th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Values of Slow Fashion from a Social Viewpoint

Juhyun Ro[†] · Minja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1년 9월 7일), 수정일(2011년 9월 23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21일)

Abstract

Slow fashion can be viewed as an activism that provide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problematic issues of fast fashion in a practical sense; however,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it is a fashion phenomenon arising from the criticism of an accelerating society. Slowness emphasizes the virtues of moderation. Slowness refers to the recovery of human ethics that have been neglected due to the goal-oriented nature of an accelerating society. Slowness can solve the problem of conformity and discrimination in society through pluralism and respect for local indigenouness. The characteristics of slow fashion can be defined by the aesthetic values of circularity, sustainability, moderation, expressivity and convergence. This includes the beauty of circularity (which views the relationships of all processes as organic), the beauty of sustainability (which ensures the maintenance of continuous emotions and the durability of products that can be promoted through slow processes), the beauty of moderation (which places importance on spiritual values and the moderate use of materials), and the beauty of expressivity (which plays the role of a social messenger that facilitates social assertion). These combined values present the beauty of convergence such as the harmony of local communities and the world in a blend of the old and the new with an exchange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Key words: Slow fashion, Sustainability, Slowness; 슬로 패션, 지속가능성, 느림

I. 서 론

최근 느림의 사회현상은 가속화 사회에 대한 평가와 비판에서 출발한다. 가속화 사회는 인류에게 기술 발전과 시간 절약으로 인한 많은 혜택을 누리게 했지만, 생태계파괴, 일회성, 기계화와 표준화, 소비주의,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가속화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연구의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Mun(2008)에 의하면, 서구 인

문사회과학계는 최근 가속화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우리 학계도 속도문명에 대한 학문적 인식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패션 분야에서도 가속화나 감속화의 속도 담론을 주제로 한 연구가 패스트 패션이나 슬로 패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슬로 패션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느림의 현상과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7월 현재까지 느림과 패션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2000년 이후 느림의 사회문화현상과 패션스타일, 패션현상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들이 있다. Kim(2002)은 느리게 살

[†]Corresponding author
E-mail: rotume@naver.com

기 운동(slow life)과 패션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Yang and Kim(2004)은 느리게 살기 운동과 패션조형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Lee et al.(2004), Lee et al.(2007)와 Chae(2009)는,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과 패션스타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이 연구는 Papanek과 Fuad-Luke의 디자인 이론을 바탕으로 패션스타일에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Ham(2009)과 Ham and Park(2010)은 느림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현대패션의 느림 패러다임을 산업사회 패러다임과 비교하며 거시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Vogue>에 나타난 느림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Yoo(2009)는 느림의 라이프스타일로 대두된 웰빙, 로하스, 슬로비 소비자 집단을 분석하였다. 느림과 패션을 중심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슬로 패션을 독립된 연구 주제로 삼지는 않았으며 패션 주도적 측면에서 느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조형적 측면과 소비자 행동변화의 측면에서 느림의 현상과 패션을 다루었다. 자료분석 시기가 2000년 이후 몇 년간에 걸친 단기간의 분석이 대부분이며, 국내외 내셔널 브랜드나 주류디자이너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슬로 패션의 정확한 특성과 가치를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 Fletcher(2008)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한 방법으로 느림과 빠름의 속도적용 시스템을 도입시켰으며, Clark(2008)는 슬로 패션의 현대 사례를 통해 지역자원과 분산경제, 투명생산시스템과 중개의 최소화, 지속가능하고 감응적인 상품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국외 선행연구는 국내 연구에 비해 슬로 패션의 개념을 좀 더 학술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결과, 슬로 패션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현대의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이슈를 아우를 수 있는 패션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로 패션분석을 위한 총괄적 시각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관점에서 느림을 분석하고, 방법론적 접근을 위해 슬로 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느림의 사회와 슬로 디자인을 통해 슬로 패션의 특성과 미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느림의 등장과 관련한 슬로 패션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속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느림을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둘째, 느림의 사회적 관점을 중심으로 슬로 디자인 사례를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슬로 패션을 분석

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의 틀을 정립한다. 셋째, 슬로 패션사례를 분석하여 슬로 패션의 특성과 미적 가치를 도출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가속화 사회에 대한 진단과 느림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회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슬로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Fuad-Luke(2009)의 슬로 디자인 원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코, 지속가능한 디자인 사례 및 이론을 분석하였다. 슬로 패션의 분석에 있어서는 예코, 지속가능성, 윤리적 패션디자이너 포털사이트를 통해 총 60여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정하고 디자이너의 컨셉, 철학,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결과물 등을 중심으로 언어, 사진, 동영상 자료를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슬로 패션과 느림의 사회적 관점

1. 슬로 패션의 개념

슬로 패션(slow fashion)이란 Ro(2010)에 의하면, 실천적 의미로 패스트 패션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운동(activism)이며 이론적으로 가속화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패션현상이다. 슬로 푸드 운동이 패스트 푸드가 낳은 환경오염, 산업윤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슬로 패션은 현대 패션산업의 세계화 전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인 획일화, 제품의 일회성, 환경문제, 산업윤리문제에 대한 대안, 보충의 가치를 담고 있는 실천 운동이다. 생태적 측면에서 보자면, 1960년대 이후 자연친화적인 패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발전된 접근으로서의 지속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패션의 한 방법론으로서 슬로 패션은 느림 문화 운동과 흐름을 같이 하는 느린 프로세스와 느림의 가치를 추구하며 등장한다. 따라서 슬로 패션은 좀 더 현대적 의미로 지속가능한 패션에 근접한 개념이고 생태적인 특성 뿐 아니라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포함한다.

슬로 패션이란, Fletcher(2008)에 의하면, 디자인, 생산, 소비, 그리고 웰빙에 대한 것이다. 유행과 상업에 익숙한 속도 체계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순환과 진화를 통한 자연의 시간, 전통과 지혜의 가치적 측면에서의 문화의 시간으로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슬로 패션은 패스트 패션의 반대어가 아니라, 패션상품이 노동자, 공동체, 에코시스템에 끼치는 영향력을 잘 인식하려는 데서 출발한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상업적 템포라기보다 좀 더 속도를 조절하고 인식하고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Clark(2008)는 슬로 패션이란 용어는 지속가능한 패션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며 이는 글로벌 패션시스템을 차치해 두거나 도전하는 디자인, 생산, 소비, 사용, 재사용의 패션전략들을 재위치시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러한 느림 접근법은 디자인, 생산, 소비와 사용에 함축된 패션의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물론 슬로 패션용어는 슬로 운동과 더불어 2000년 이후 생겨났지만 그 맥락과 정신은 패션역사에서 지속되어 왔다. Welters(2008)는 패션사에서 지속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고 하였으며 17세기 초기 모던사회 이후의 패션사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했다. 산업사회 이후 패션시스템은 어떤 다른 시스템보다 속도와 변화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패션이 가속의 특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장인정신, 스타일이 꾸준히 지속되어 온 전통 패션, 손수 옷을 만들어 입는 과정, 우리의 일상적인 의복생활은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느림의 한 단면이다. 현대 패션산업이 갖고 있는 유행성의 요소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옷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인 실용, 보호, 자아표현, 문화전파의 기능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슬로 패션은, 기존 패션시스템의 산업속도에 비해 좀 더 자연과 문화의 속도에 접근하여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와 조화되는 리듬으로 이루어진 패션이라 요약할 수 있다.

2. 느림의 사회적 관점

슬로 패션에 대한 논의는 느림의 사회적 코드와 맞닿아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느림의 사회적 관점이란, 근대 산업사회 이후 지속되어 온 가속화로 인한 지나친 인간 중심적 자연관의 문제점을 실감하고, 점차 생태계를 고려하는 생태 중심적 자연관으로의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하나의 사회변화를 말한다. 지나친 소비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심적인 소비문화와 절제의 미덕, 그리고 기계화, 획일화 산업시스템에서 경시되어 온 인간 윤리성의 회복, 세계화로 인한 인류 불평등, 소외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다원주의와 지역 토착성의 존중 등이 느림의 사회적 관점을 실천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느림은 절제의 미덕을 강조한다. 가속화 사회의 지나친 소비주의, 물질주의가 갖는 과욕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정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비 물질화 사회로의 이행을 주장한다. 물질의 소비는 인간의 행복과 비례의 관계가 아니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적절한 소비, 절제를 통한 풍요로운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특히 Rifkin(1999)의 저 엔트로피 사회와 Schmacher(2002)의 소규모 사회는 이러한 절제의 미덕을 잘 대변해 준다. Rifkin(1999)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고 엔트로피 사회에 비해 저 엔트로피 시대에는 절제가 삶의 중요한 미덕이고, 무절제한 소비와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내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며, 생태계에 관심을 두는 사고방식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Schmacher(2002) 역시 대규모 사회보다는 소규모 사회를 지지한다. 중앙 집중 경제체제보다는 분산 경제체제의 효율을 설명하며, 절제와 빈곤의 행복을 미덕으로 삼는 인간적 기술을 가진 소규모 사회를 유익한 사회로 본다.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달려가는 산업구조였다. 반면 양심적인 소비, 절제의 미덕은 인간의 행복 수준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기보다 정신적인 것에서 풍부하게 충족할 수 있음을 말한다.

둘째, 느림은 가속화 사회의 목표 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경시되어 온 인간 윤리의 회복을 말한다. 가속화는 결과와 성장 위주의 산업체제를 만들어 내었고, 산업발달로 인한 기계화는 인간 노동을 수단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느림은 윤리의 회복을 통해 인간 관계를 회복하고, 지나친 기계화, 거대화 시스템으로 인해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 노동의 가치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 관계를 통한 나눔의 실천을 재인식하고 있다. 나눔과 공익을 실천하려는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느림의 코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느림은 사회획일화와 차별의 문제를 다원주의와 지역 토착성의 존중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원주의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움직임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외받는 지역 토착문화를 좀 더 포용하

자는 의미이며, 그런 면에서 다양성의 존중, 획일화에 대한 비평의 성격이 담겨 있다. 여러 비 세계화의 주장을 끌어안고 사라져 가는 지역 전통 문화의 토착 과정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느림의 관점<Fig. 1>은 어떤 급진적 태도도 아니며 시대 후퇴의 함의도 아니며 미래를 위한 조정과 균형의 자세이다. 이러한 느림은 과거의 지혜에서 해결안을 찾기도 하며, 동양 사상의 순환성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서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지 않았던 느림의 관점이 현대 사회에 다시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III. 느림의 사회적 관점에 의한 슬로 디자인의 특성

1. 느림의 사회적 관점에서 본 슬로 디자인

앞에서 논의한 느림의 관점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느림의 가치를 실천하는 슬로 디자인(slow design)은 디자인 사고의 새로운 개념이며 슬로 푸드 운동의 2차적인 파생 운동이다. 조사, 계획이나 의도, 실생활에의 영향력에 대한 실험과 정교한 조율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진 장

시간의 디자인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지역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디자인이거나 지역 산업, 작업실, 공예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한 디자인, 지역 문화를 영감의 재료로 사용하고 자연적인 시간순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디자인과 제조과정에 접목한 디자인이다. 인간 행동과 지속가능성의 긴 사이클을 바라보는 디자인을 말한다(Fuad-Luke, 2002). 슬로 디자인은 2006년 밀라노에서 Slow+Design 선언으로 공표되었고 Fuad-Luke는 2004, 2005년 slowdesign.org 웹사이트를 통해 슬로 디자인 개념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슬로 디자인이란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인지하고 끌어안는 것이라 했다(Fuad-Luke, 2002).

주요 디자인 이론가와 실천가들의 논의를 통해 종합한 느림의 관점과 슬로 디자인 이론은 먼저 절제의 미덕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와 생산을 절제하기 위해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축소하고 유지 보수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또한 디자인 결과물은 완벽하게 제작하는 것보다 정제되지 않은 검소함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물질의 개념에서 비 물질, 즉 정신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디자인의 정신적 측면인 서비스, 경험, 심미적인 요인들을 디자인 요소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시킨다.

	Accelerating Society: People-focused	Decelerating (Slow) Society: Symbiosis with nature and peopl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society, and nature
Social viewpoint	Consumerism	Moderation: conscious consumption
	Devaluation of people's labour from the mechanized system	Recovery of humanity
	Discrimination or alienation from a global standardization	Pluralism/ local indigeneity
		De-materialized society
		Low entropy society by Rifkin small society by Schmacher
		Recovery of people's labour value
		Communal society/shared wisdom
		From standardization to diversification
		Regarding local indigeneity as important

Fig. 1. The social viewpoint of slow society.

둘째, 인간 윤리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슬로 디자인은 디자인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해야 함을 주장한다. 극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고급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소외 계층과 모든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디자인의 목적이다. 또한 슬로 디자인 이론은 대부분 인간과의 관계를 통한 디자인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디자인 과정은 디자이너의 전유물이 아니라 소비자와 모든 사용자가 공유해야 하며, 이러한 개방성은 다양한 디자인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다원주의와 지역 토착성의 존중의 측면에서, 슬로 디자인은 윌리엄 모리스가 주창한 수공예 부활의 역사로 거슬러 갈 수 있다. 수공예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토착적 디자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색과 전통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은 다원화의 관점에서 확립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토착적 디자인은 고립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점,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슬로 디자인의 방식이다.

2. 슬로 디자인 사례연구

다음은 대표적인 슬로 디자인의 사례<Fig. 2>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질의 절제 측면에서 보자면, Walker(2006)는 <Fig. 2-1>의 Bottle Lamps와 같이 정제되지 않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활용한다. 폐기된 세제병을 갖고 특별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램프갓으로 용도를 변형하여 활용한다. 기능적인 형태로 변형될 뿐 아니라 재료를 재배치함으로써 인해 물건에 대한 의미를 전환한다. 재활용을 통해 물질을 절제할 수 있고 디자인을 단순하게 함으로 불필요한 물질을 절약할 수 있다. 복잡하고 거창한 제조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단순화된 제조과정을 통한 가벼운 터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섬세한 감수성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다. 가벼운 터치만을 넣어 주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산업 공정보다는 수공예 감수성이 들어간 지역 중심의 소규모 공방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의 비 물질화 특성은, 물질 외의 서비스, 경험, 놀이, 감정, 정보, 이야기 등의 모든 정신적인 요소를 디자인하는 것을 뜻한다. Arnadottir(2010)의 Sasa

Clock<Fig. 2-2>은 기계적인 시계의 의미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시간에 대한 감정을 디자인한다.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에, 비즈들은 시계 몸체에서 벗겨져 목걸이가 된다. 기계적인 시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된다는 의미에서 착용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Arnadottir, 2010). 이처럼 디자인의 비 물질화는 시각적으로 물질을 디자인하기보다 제품의 이야기와 경험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감정적 지속성과 연관이 있다. 정신적 가치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물질을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세심한 사유와 관찰이 필요하며 디자인은 신중한 사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눔의 실천 특성에서, 슬로 디자인은 사회적 선의를 재강조하기 시작한 기업과 디자인 사례들이 나오면서 인간적인 디자인과 사회적인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다. 사회적 참여와 공공 선의를 위한다는 점에서 슬로 디자인은 느낌을 통해 주위를 되돌아보고 공유하는 자세를 통해 선의를 나누고자 한다. Rakowitz(2000)의 paraSITE<Fig. 2-3>는 노숙인을 위해 빌딩에 남아도는 전력과 냉난방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냉방과 난방열을 임시공간에 연결함으로써 에너지를 나눈다. 남은 열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에너지의 순환이 효율적이며 이 에너지를 노숙인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모든 과정의 공유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슬로 디자인은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여 오픈소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공정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의 경험에 대한 공유를 컨셉으로 디자인한, Peyricot(2010)의 Slow Rider<Fig. 2-4> 디자인은 도시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자동차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22세기 도시는 서두름이 사라지고 자동차를 통해 여유를 부릴 것이라는 가상에서, Peyricot는 자동차를 분해하고 느린 생활을 위해 제조립한다. 모터는 좀 더 느리게 갈 수 있도록 냉장고 발전기로 대체한다. 주차 지역에서 쉬기 위해 자동차는 거리의 한 구처럼 된다. 멈추어 선 채 차체에서 외부 공간을 활용해 사람을 만나는 카페로 변한다(Peyricot, 2010). 또한 소비자가 완성하는 참여의 디자인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마무리의 여지를 남겨둔다. 디자이너와 소비자 간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품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지속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디자인 과정을 개방적으로 공유하여, 은폐되지

Fig. 2-1. Bottle Lamps.
From Walker. (2006). p. 180.

Fig. 2-2. Sasa Clock.
From Arnadottir. (2010). <http://www.thorunnndesign.com>

Fig. 2-3. paraSITE.
From Rakowitz. (2000). <http://www.michael-rakowitz.com>

Fig. 2-4. Slow Rider.
From Peyricot. (2010). <http://www.olivier-peyricot.com>

Fig. 2-5. Energy Harvesting Bag.
From Smith. (2007). p. 30.

Fig. 2-6. Once Upon a Time.
From Van den Boom. (2005). <http://www.judithvandenboom.nl>

Fig. 2. Slow design examples.

쉬운 비윤리적인 디자인 과정을 해소할 수 있다.

슬로 디자인은 또한 지역 토착성을 존중하는 수공예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토착적인 디자인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디자이너의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에 기반을 두고 무엇을 만들거나 짓거나 하는 것이다(Lee, 1992).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 공예 운동의 철학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수공예 정신을 부활하여 공예의 예술성을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커뮤니티의 협동과 공유를 통해 인간적 기술을 재 가치화하였다. 이처럼 슬로 디자인의 관점은 노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기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공예 방식을 사용하고 과도한 기계 지향적 태도를 지양한다. Energy Harvesting Bag<Fig. 2-5>은 멕시코 수공예 직조 기술에 의해 제작된 가방으로, 한 면은 태양열을 받아 저장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다른 쪽은 수공예로 제작하였다(Smith, 2007). 지역 커뮤니티에서 수작업되어 생산한다. 사례를 통해 고찰한 토착적인 디자인의 방식은 수공예인, 장인, 지역민에 의해 로우테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 전통 기술에 대한 노

동력을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공예 기술을 재 가치화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디자이너 못지않게 생산자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있다.

지역 토착성의 재발견 특성에서, 슬로 디자인이 강조하는 것은 지역 분산성이다. 대부분의 슬로 디자인 사례는 지역 중심의 경제체제를 활용한 디자인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지역성은 고립된 지역성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네트워크하는 측면이 있다. 지역 분산화의 관점은 세계화가 갖는 거대화의 속성과 비교했을 때 인간 친화적 방식이며 참여와 협동을 통한 자율적인 방식을 취한다. 또한 획일화의 속성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지역 문화가치를 되살리고자 한다. Van den Boom(2005)은 슬로 디자인의 개념을 실천하려는 운동가 중 한 명이며, 그녀의 2005년도 작품 Once Upon a Time<Fig. 2-6>은 중국에서의 작업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중국 도자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중국 도자기를 재활용해 도자기의 이미지와 자신의 이미지를 오버랩하여 작품으로 완성한다. 기존의 깨진 도자기 위에 새로운 옷을 입히기도 하고,

중국 도자 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한다(Van den Boom, 2005). 전통적인 지역 소재, 지역 생산공정, 지역 전통 제작기법, 지역적인 자연 특수성의 활용을 통해 디자인을 제작하여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약간의 현대성을 첨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IV. 슬로 패션의 특성과 미적 가치

1. 사례연구를 통한 슬로 패션의 특성

1) 물질의 절제와 비 물질화

앞에서 논의한 슬로 디자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슬로 패션의 특성<Fig. 3>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슬로 패션에서 물질 절제의 특성은 중고 옷에 대한 관심, 재활용, 물물교환, 디자인의 단순화, 모듈 디자인과 다목적 디자인을 통한 절약을 들 수 있다. 패틴이나 사용 소재를 절약하고, 대량생산체제에서 소량생산체제로 변환하며, 시즌 구분이 없는 시즌리스 컬렉션으로 불필요한 컬렉션의 빈도를 줄여 꼭 필요한 작업만 실시 Sew Last Season의 Recycled dyed shirt with lace effect thread strip<Fig. 3-1>은 ‘재활용 꾸뛰르(recycled couture)’로 지난 컬렉션에서 남은 아이템에 아플리케, 염색, 레이스기법, 콘트라스트 스티치 등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첨가해 새로운 옷으로 리폼한다. 지난 시즌 옷 자체가 디자인의 주제이며, 새 옷이라는 의미는 지난 옷에 약간의 변화를 가하는 방식이다(“Our story”, 2010). 재활용 외에도 절제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은 대부분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이다. 불필요한 디테일과 장식을 없애고, 가능한 한 최소 요소를 통해 디자인에 접근한다. 많은 슬로 패션철학을 가진 브랜드에서는 단순성이라는 디자인 컨셉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좀더 감각적이고 섬세한 텍스처와 촉감을 중시한다. Matei(2010)는 시즌 개념이 없는 슬로 패션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패션산업화에 있어 시즌은 소비를 부추기며 불필요한 재생산과 폐기물을 양산한다. 슬로 패션은 이러한 시즌의 개념을 없애고 필요한 욕구에 맞게 적절히 디자인하고, 내구적인 디자인에 중점을 둔다.

슬로 패션은 물질을 절제하는 데 있어 다목적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Rissanen(2008)은 원단 폐기를 줄이기 위한 패션방법에 몰두한다. 패션을 창조하는 방법을 원단 폐기량의 측면에서 접근해 지그재그 방식의 패턴을 제시한다. Liu(2008)의 On the cutting edge<Fig. 3-2>는 지그재그 시접 제로 웨이스트 개념을 착안한 것으

로,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며, 재단하고 남은 원단을 줄이고 목적에 따라 디자인을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절약이 돋보인다.

또 다른 방식은 물질적인 것을 비 물질화하여 디자인하는 것이다. 디자인의 비 물질화는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에서부터 경험, 서비스, 주장, 스토리, 역사 등 정신적인 가치를 디자인한다. 물물교환, 스토리, 감정의 소통 등이 이에 속한다. Von Busch(2004)의 Italian Avlusu Project<Fig. 3-3>는 물물교환 가게를 열어, 소비자는 돈을 주고 옷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고 옷과 교환하여 다른 옷을 구매할 수 있다. 옷에 크게 달린 태그에는 ‘왜 더 이상 이 옷을 입지 않게 되었는지 그 옷을 언제 사고 어떻게 입었는지’ 대한 이전 사용자의 이야기를 함께 구매하도록 한다. 옷을 구입한다는 의미는 이전의 사람이 입었던 옷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구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Von Busch, 2004). 옷은 교환되면서, 여러 사용자에 의해 덧붙여진 의미의 교환과 진화를 축적하게 된다. A Jacket for Lonely People by COMPANY<Fig. 3-4>는 벨크로 띠로 만들어진 재킷이다. 도시를 걷는 한 외로운 사람이 같은 재킷을 입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을 때, 두 재킷이 연결되는 컨셉에서 출발하였다(Droog & Kramer, 2008). 이는 개인화와 공동사회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디자인에 연결한 개념 디자인이다. 이처럼 슬로 패션에서의 비 물질화는 무궁한 방법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물교환 방식, 이야기 중심의 디자인, 공감각적 요소를 디자인하는 다양한 방식 등을 제시한다.

2) 나눔의 실천과 모든 과정의 공유

슬로 패션은 국제노동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사회정책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공정무역, 공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윤리성을 패션산업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시켰다. 패션산업의 세계화는 출처가 불분명한 글로벌한 옷을 대량생산하는 데 기여하였고 소비자는 값싼 옷에 열광하지만, 그 옷의 생산자와 수많은 생산유통단계에서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인간의 소중한 노동을 존중하고 가치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공정무역단체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 이에 슬로 패션 브랜드들은 공정무역, 노동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거론한다. People Tree<Fig. 3-5>는 공정무역을 선구적으로 시도한 대표적인 브랜드로, 상품들은 단순하게 디자인하고 자연섬유로 제작한다. 협력단체로 20여 개발도상국, 70여 공

정무역업체들과 협업하며 공정한다. 생산자에게 공정한 단가를 제시하고 그들에게 디자인과 기술적 지원을 함께 한다. 또한 1,400여 장인들의 특별한 기술력에 의존하고 방글라데시로부터 손으로 직조한 면, 인도의 자도시(zardosi) 자수, 일본식 목판 프린팅 향가(hanga)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능한 한 많은 공정단계에서 사람들과 환경에 이익을 주고자 한다(Minney, 2010). XS project<Fig. 3-6>는 아프리카 폐현수막이나 폐기물을 수집하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기물을 그들로부터 구입하고 그들에게 교육과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가방을 디자인하여 제작한다(“About XS”, 2000).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한 그 수익을 커뮤니티에 환원한다. 현재 슬로 패션의 사례들은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 중이며, 이는 타 브랜드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브랜드뿐만 아니라 공정무역단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도 슬로 패션의 철학을 실천하는 움직임 중 한 단면이다.

슬로 패션은 공동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참여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디자이너 고유의 상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소비자 참여의 디자인을 통해 슬로 패션은 공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공유와 참여의 프로세스는 인간 관계의 문제와 공동화 커뮤니티에 필요한 유대, 공생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또한 패션산업을 통한 이익금을 후원의 용도로 공유하는 방식, 모든 제작공정을 공유하는 지문 인식 프로그램(Footprint Program) 역시 공동사회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Made-by<Fig. 3-7>는 패션공정의 모든 과정이 추적 가능한 시스템이다. Made-by라는 레이블 하에 제작된 상품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의 제작공정이 공개되며, 케어 레벨 옆에 작은 단추로 표시된다. 인터넷을 활용한 추적 기술을 통해 모든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Track and Trace”, 2010). 많은 슬로 패션브랜드들이 과정의 투명성을 인식하고 풋 프린트 프로그램과 생산 공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Raintees의 We plant trees with tees<Fig. 3-8>는 아마존 지역의 삼림을 보호함과 동시에 아마존 지역 아이들의 복지 교육을 위해 탄생한 브랜드로서, 지역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여, 티셔츠를 제작함으로써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Doane, 2010).

이처럼 인간의 기술을 대량생산체제를 위한 수단화된 도구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출발한 다양한 공정무역브랜드들은 수공예 장인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제3세계의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까지 다양하게 이어진다. 이러한 인간 노동가치에 대한 관심은 모든 패션공정시스템을 투명화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많은 기업에서 풋 프린트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문제를 해소하기도 하며, 이 옷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태도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과 윤리문제를 해소해 준다. 대량생산체제에서 놓치고 있었던 인간 노동에 대한 가치 실현과 과정에 대한 관심,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인간의 가치 실현은 패션산업 전 공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료의 재배, 수확, 운송, 제작, 디자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간 윤리에 대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3) 수공예의 활용과 토착성의 재발견

다원주의와 지역 토착성의 존중 특성에서 슬로 패션 사례를 살펴보면, 타 지역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역산물, 전통 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지역 전통 산업의 보호와 관심을 들 수 있다. 제3세계의 지역 전통 기술을 복원하고 활용하려는 특성과 그들의 수공예 전통을 지원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자국 내의 생산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소규모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슬로 패션에서의 토착적 디자인의 특성은 지역의 특수한 재료를 활성화하고, 수공예, 장인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을 계승하고 인간 노동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다. 수공예를 활용한 토착적인 디자인은 주문생산 방식, 고객맞춤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탈 규격화한 과정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공예 작업들은 공동사회의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다. Indigenous Designs<Fig. 3-9>는 수공예 장인들의 협력 커뮤니티이다. 수공예 장인들의 핸드 니팅, 핸드 우븐 기술들을 전파하고 활용하기 위해 그들을 지원하고 홍보한다(“Hand-held”, 2010). 장인들의 수공예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단체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작업을 판매하고 있다. Alabama Chanin은 구 세계의 공예와 최신 스타일을 혼합하는 재탄생의 작업인 알라바마 지역 프로젝트이며, 알라바마에서 이전의 공장노동자, 퇴

Social viewpoints of slowness					
The virtues of moderation		Recovery of human ethics		Pluralism and respect for local indiginity	
Slow fashion characteristics					
Saving materials	Dematerializing	Shared wisdom	Open process	Utilizing handicraft	Rediscovery of indiginity

Fig. 3-1. Recycled dyed shirt with lace effect thread strip. From Our Story. (2010). http://www.sew-lastseason.com	Fig. 3-3. Italian Av-lusu Project. From Von Busch. (2004). http://www.kulturservern.se	Fig. 3-5. People Tree. From Minney. (2010). http://www.peopletree.co.uk	Fig. 3-7. Made-by From Track and Trace. (2010). http://www.madeby.nl	Fig. 3-9. Indigenous Designs. From Hand-held knitting loom. (2010). http://www.indigenousdesigns.com	Fig. 3-11. Winter 2008 Collection. From About Adamah Stein. (2007). http://www.ethiquemode.com

Fig. 3-2. On the cutting edge. From Liu. (2008). http://www.stique.com	Fig. 3-4. A jacket for lonely people by COMPANY. From Droog and Kramer. (2008). http://www.droog.com	Fig. 3-6. XS project. From About XS project history. (2000). http://www.xstransformed.org	Fig. 3-8. We plant trees with tees. From Doane. (2010). http://www.raintees.com	Fig. 3-10. Love+Happiness 2010 S/S Collection. From Chanin. (2006). http://www.slowlab.net	Fig. 3-12. Dosa. From Kim. (2010). http://www.dosainc.com
↓					
The aesthetic values of slow fashion					
Circularity	Sustainability	Moderation	Social Expressivity	Convergence	

Fig. 3. Th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values of slow fashion from a social viewpoint.

직한 선생님, 과부, 전업주부 등 다양한 20대에서 70대까지의 다양한 지역 여성들을 고용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슬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Chanin의 이상은 그녀 자신의 배경에서 묻혀 버린 자원들을 새로이 꺼내고자 한 측면, 시간성이 부여된 지역의 공예를 부활시킴으로 인해 직업을 재창출했고 지역 커뮤니티를 재활성화했다는 점에서 느낌이라 부른다(Chanin, 2006). Chanin은, 지역 전통을 되살리고 지역적 소재와

기법을 살렸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했으며, 일상적인 여성들의 작업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일상성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한 오래된 수공예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화의 측면이 엿보인다. 또한 노동자와 디자이너의 참여를 증가시키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공생의 특징이 엿보인다. 그녀의 브랜드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알라바마 지역과 디자이너 Chanin의 협동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슬로 패션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Fig. 3-10>은 Chanin의 Love+Happiness 2010 S/S Collection으로, 지역인들의 수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컬렉션이다.

슬로 패션은 자국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타자의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를 통해 그들의 수공예 기법과 전통 기법을 활용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Adamah Stein의 Winter 2008 Collection<Fig. 3-11>의 경우 이슬람교도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매트와 카펫을 가지고 재구성한다(“About Adamah Stein”, 2007). 패션의 소재로 보기에 비 일상적인 소재를 패션에 적용시킴으로써 아이디어의 다양성을 획득할 뿐 아니라 에너지 순환의 효과성에 있어서도 패션이 기여할 수 있다. 세네갈의 테일러링 장인에 의해 제작하며 매트와 카펫의 지역적인 특성이 끌려주되고 재조합되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드러내 준다. Dosa<Fig. 3-12>는 세계 크래프트 커뮤니티와 연계되어 작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통 방식의 노동을 선호하며 수공예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제작자의 에너지와 감수성이 포함된 옷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다. 그녀는 또한 시즌별 새 컬렉션을 실천하는 대신 일 년에 한 번의 컬렉션을 생산해 내어 작업량을 조절한다(Kim, 2010).

2. 슬로 패션의 미적 가치

느림의 사회적 관점에 의한 슬로 패션은 물질을 절제하고 비 물질화하는 태도를 통해 절제의 미덕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모든 과정을 공유하는 자세를 통해 윤리성을 회복한다. 또한 지역 수공예를 활용하고 토착문화를 재발견하며 지역 특수성과 세계 공유성의 조화를 모색한다. 이러한 슬로 패션의 다양한 특성들을 종합하여 보면, 크게 순환, 지속, 절제, 표현, 융합의 미적 가치로 종합할 수 있다.

첫째, 슬로 패션은 순환의 미를 내포한다. 순환이란, 직선상으로 질주하여 제품이 완성되거나 빠른 템포로 새 상품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델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순환하고 연결된 요람에서 요람으로(cradle to cradle)의 개념이다. 순환의 미는 구체적으로 반복의 요소나 유기적인 연관, 공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난

시즌 컬렉션의 작품을 활용하여 새 시즌을 디자인해 버려져 있는 에너지가 순환하게 하는 Sew Last season, 한 옷의 일생과 제품 순환에 대한 의미와 감정을 디자인한 Italian Avlusu, 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공유하고자 만들어 낸 Made-by 등은 어떤 과정이 단절되어 빠르게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시스템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작업과정이다. 모든 과정의 인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간, 사회, 환경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테마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느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슬로 패션은 지속의 미를 가진다. 지속성이 강한 패션은, 기능적이고 형태적으로 견고하도록, 전 공정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고안된 느린 프로세스를 통해 내구성을 증진하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감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에 생명력과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한 가지 요인에 대한 끊임없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이 감정적으로 사용자와 결속될 수 있게 한다. 과거와 현대를 지속시키거나, 빠른 상품 순환으로 인해 단절되어 버린 옛 것과 새 것과의 지속을 디자인하는 Alabama Chanin, 비 물질화한 디자인 요소로 제품의 상품지속력을 사용자와 연장시키는 A Jacket for Lonely People, 상품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소중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Raintees 등의 사례가 슬로 패션만의 지속성을 다양하게 설명해 준다.

셋째, 슬로 패션은 절제의 미를 지닌다. 사회와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는 것은 물질의 절제로부터 오는 검소함에서 출발하며, 물질적인 요소를 가능한 한 비 물질적 요소로 전환하여 절제의 가치를 실현한다. 기존의 미니멀리즘이 갖는 세련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단순성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성향을 가진 순수성을 통해 절제를 보여준다. 시즌리스 컬렉션으로 꼭 필요한 디자인만을 생산하는 Zoica Matei, 단순한 디자인에 지역 장인들의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People Tree, 새로 생산된 원단보다는 기존의 원단을 재활용해 디자인하는 Adamah Stein과 Alabama Chanin 등의 작업사들이 순수한 절제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슬로 패션은 사회적 메신저로서의 표현력을 갖는다. 패션디자이너와 생산자들은 패션활동을 통해 윤리적인 인간을 대변하는 메신저로서 활동한다. 환경 이슈에 대한 주장, 공공윤리성에 대한 사회적인 주장들은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디자이너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지로서 혹은 비 물질적 활동을 통해

표현한다. 개인의 미적 취향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에서 좀 더 사회적 주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슬로 패션은 기존의 가속화 체제에서 이용되어 왔던 패션시스템을 수정하려는 시도로도 연결된다. 외적으로 절제된 표현력을 보여 주는 대신, 사회적 주장을 하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되기 위해, 다양한 단체 XS project, Raintees, People Tree, Indigenous designs 등은 인간의 노동력, 생산자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사회를 향해 주장하는 바를 패션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패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와 사용자, 소외된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엘리트 디자이너 중심의 패션에서 좀 더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다섯째, 슬로 패션은 위에서 서술한 다양한 특성과 가치들을 혼합하려는 융합의 미를 지닌다. 융합은, 전 문화 시스템으로 인해 공유할 수 없는 지식과 자료, 사라져 가는 지역 전통과 세계화되고 획일화된 방식들과의 조화, 기계화로 인해 경시되어 온 인간 기술력에 대한 부활 등으로 가시화된다. 슬로 패션은 지역 전통 방식의 수공예 기술과 장인 정신을 통한 과정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적인 실루엣과 재단 방식을 취하고, 사라져 가는 지역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혹은 타자의 전통 수공예 기술을 윤리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자인에 토착성과 현대성을 융합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융합하여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Raintees, 지역 토착민의 기술력을 현대적인 디자인에 융합하여 디자인하는 Alabama Chanin, 이슬람교의 전통 패턴을 현대적인 재킷에 조합한 Adamah Stein, 세계 곳곳의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한 Dosa 등 융합의 가치는 슬로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미적 가치이며, 인간과 제품 사이, 기술과 기술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제품과 제품 사이의 관계 등을 연관시키고 융합함으로써 느낌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V. 결 론

마지막으로 슬로 디자인과의 고찰을 통해 종합적으로 슬로 패션을 살펴보았다. 순환의 가치에서 슬로 패션은 자연시스템을 그대로 닮으려는 속성보다는 프로세스와 방법적 측면에서 자연을 고려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패션은 인간이 직접 착용해야 하는 특성으로, 좀 더 인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인간의 요구에 대한 밀착된 감정이 요구

된다. 따라서 슬로 패션의 방식은 인간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디자인을 출발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모색한다. 지식의 가치에서 슬로 패션은, 생물학과 생체 모방학 같은 지식보다는 감정의 지속성을 위해 인간 공학 지식을 활용해 내구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은 사회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기능의 내구성보다는 감정적 지속성이 더욱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품과 인간과의 결속력을 자주 교체하는 특성은 물물교환, 헌 옷 기부, 빈티지 감성 등의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해결해 간다. 절제의 가치에서의 슬로 패션은 기존의 완제품을 재분해해서 원래의 제품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재구성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한 기존 완제품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방식보다는 재고 원단이나 빈티지 원단을 활용해 디자인하는 경우가 더 많아, 패션에서의 업그레이드 개념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슬로 패션에서는 디자인을 비물질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메신저로서의 표현에서의 슬로 패션은 슬로 디자인의 관점에 비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사회적 주장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슬로 패션은 슬로 디자인에 비해 인간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며, 노동윤리문제에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잦다.

슬로 디자인과 슬로 패션의 공유성과 특수성을 고찰하여 본 결과 느낌의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한 디자인의 특성과 미적 가치들은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다만 슬로 패션은 인간과 옷과의 밀착 관계로 인해 유기적인 순환성, 감정적 지속성, 사회적 메신저로서의 표현성 측면에서 좀 더 인간적인 측면이 세심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특수성으로 도출되었다.

종합적으로 슬로 패션의 가치는 느낌과 빠름의 공존 체제로서의 균형이며,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사회활동의 발전된 형식이다. 슬로 패션의 여러 가치들은 지나친 가속화와 거대화의 속성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고, 사회활동과 실천에 대한 시기적절한 적응과 발전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현상을 현대 사회의 가속화와 감속화라는 속도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속도와 사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관하여 분석하는 데 적절한 연구의 틀이 되리라 예상한다. 이론적 고찰의 특성상 패션의 심미적 특성, 조형성,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패션을 좀 더 일반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슬로 디자인이라는 인접 분야의 방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슬로 패션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적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슬로 패션만의 고유한 사회적 접근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의의가 있다. 사례분석에 있어 세계화의 흐름에서 논의한 패션디자이너 사례연구에서 벗어나 패션사례를 좀 더 지역적이고 소규모 디자이너로 선정한 것 역시 다양한 사례를 도출하는데 적절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제약 및 한계점으로는 먼저 주장의 근거를 서구 중심의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좀 더 다원화된 슬로 패션의 특성을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로 비 서구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점과 함께, 비 서구 디자인과 패션사례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ferences

- About Adamah Stein. (2007). *Adamah Stein*. Retrieved July 5, 2010, from <http://ethiquemode.com>
- About XS project history. (2000). *XS project*. Retrieved August 1, 2010, from <http://www.xstransformed.org>
- Arnadottir, T. (2010). Arnadottir's portfolio: Sasa Clock. *Thorunn Arnadottir*. Retrieved August 7, 2010, from <http://www.thorunnndesign.com>
- Chae, H. S. (2009).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ustainable slow design and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4), 531–542.
- Chanin, N. (2006). Slowlab project: Alabama Chanin. *Slow Lab*. Retrieved August 1, 2010, from <http://www.slowlab.net>
- Clark, H. (2008). Slow+Fashion-an oxymoron-or a promise for the future...? *Fashion Theory*, 12(4), 427–446.
- Doane, B. (2010). We plant trees with tees. *Raintees*. Retrieved August 10, 2010, from <http://www.raintees.com>
- Droog & Kramer, K. (2008). SINGLE TOWN: A jacket for lonely people by COMPANY. *Droog Design*. Retrieved July 20, 2010, from <http://www.droog.com>
- Fletcher, K. (2008). *Sustainable fashion & textiles*. London: Earthscan.
- Fuad-Luke, A. (2002, December). *Slow design-a paradigm shift in design philosoph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Design by Development, dyd02 Conference, Bangalore, India.
- Fuad-Luke, A. (2009). *Design activism: Beautiful strangeness for a sustainable world*. London: Earthscan.
- Hand-held knitting loom. (2010). *Indigenous Designs*. Retrieved August 1, 2010, from <http://www.indigenousexperiments.com>
- Ham, Y. J. (2009). Fashion paradigm of “slowness” o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Industry*, 11(4), 527–536.
- Ham, Y. J., & Park, J. H. (2010). The “slow” fashion characteristics expressed on Vogue magazine since 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Industry*, 12(6), 715–722.
- Kim, C. (2010). Dosa glossary. *Dosa*. Retrieved August 2, 2010, from <http://www.dosainc.com>
- Kim, Y. H. (2002). The “be slow” movement and its impact on the current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6), 165–179.
- Lee, Y. H., Lee, H. A., & Park, J. O. (2007). Sustainable slow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1), 21–32.
- Lee, Y. H., Lee, Y. M., & Ha, S. Y. (2004). Sustainable slow design based on Victor Papanek's ecological aesthe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11(3), 185–197.
- Lee, J. G. (1992). *Design axiology*. Chongju: Chongju University Press.
- Liu, M. (2008). Collections: On the cutting edge. *Mark Liu*. Retrieved August 4, 2010, from <http://www.stique.com>
- Matei, Z. (2010). About Zoica Matei. *Zoica Matei*. Retrieved August 10, 2010, from <http://www.zoicamatei.com>
- Minney, S. (2010). People Tree: Fairtrade. *People Tree*. Retrieved August 3, 2010, from <http://www.peopletree.co.uk>
- Mun, B. H. (2008). Modernization as the process of acceleration. *Discourse* 201, 11(3), 35–59.
- Our Story: What does sew last season do? (2010). *Sew Last Season*. Retrieved July 30, 2010, from <http://www.sew-lastseason.com>
- Peyricot, O. (2010). Slow Rider. *Olivier Peyricot*. Retrieved August, 10, 2010, from <http://www.olivierpeyricot.com>
- Rakowitz, M. (2000). Rakowitz's project: paraSITE. *Michael Rakowitz*. Retrieved July 10, 2010, from <http://www.michaelrakowitz.com>
- Rifkin, J. (1999). *Entropy: A new world view* (H. Choi, Trans.). Seoul: Bumwoo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Ro, J. H. (2010). *The aesthetic values of slow fashion from an ecological and social viewpoi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Rissanen, T. (2008). Creating fashion without the creation of fabric waste. In J. Hethorn & C. Ulasewicz (Eds.), *Sustainable fashion why now?* (pp. 184–206). New York: Fairchild Books.
- Schmacher, E. F. (2002). *Small is beautiful* (S. H. Lee, Trans.). Seoul: Moonye Publishing Co.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Smith, C. E. (2007). *Design for the other 90%*. New York: Editions Assouline.
- Track and Trace. (2010). *Made-by*. Retrieved July 5, 2010, from <http://www.made-by.nl>
- Van den Boom, J. (2005). Workspace: Once Upon a Time. *Judith van den Boom*. Retrieved August 1, 2010, from <http://www.judithvandenboom.nl>
- Von Busch, O. (2004). Italian Avlusu Project. *Otto von Busch*. Retrieved August 10, 2010, from <http://www.kulturserv-ern.se>
- Walker, S. (2006). *Sustainable by design: Explorations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Earthscan.
- Welters, L. (2008). The fashion of sustainability. In J. Hethorn & C. Ulasewicz (Eds.), *Sustainable fashion why now?* (pp. 7-29). New York: Fairchild Books.
- Yang, C. K., & Kim, M. K. (2004). A study on 'be slow movement' expressed in the formative factors of contemporary fashion. *The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18, 65-89.
- Yoo, H. S. (2009). A study on fashion in aesthetics of slownes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2(1), 99-115.